

開途國의 原子爐 현황

지난 6월 7일 이스라엘 空軍전폭기들이 이라크의 오시라크原子爐를 폭파한 사건은 우리 인류에게 핵확산에 의한 핵전쟁의 공포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중대한 계기가 됐다.

최근 스톡홀름의 國際平和研究所조사에 따르면, 美蘇등 핵보유국들이 저장하고 있는 전략핵탄두수는 1만 2천개로 총폭발위력은 히로시마型 原爆의 1백30만개분에 해당한다. 여기에 몇만개에 달하는 전술핵무기와 최근 개발중인 최신 核武器의 화력까지 합치면, 그 폭발위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가공한 것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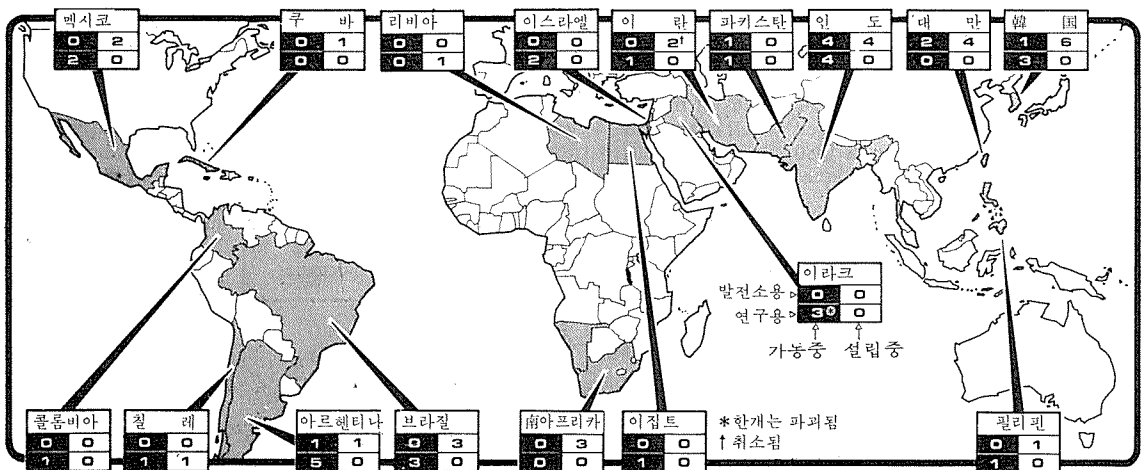
현재 추세대로 핵잠재국이 확산될 경우 20년내에 20개국의 핵보유국이 늘어날 전망이다. 石油危機로 인한 부족한 에너지供給수단으로서 原子力 發電이 총아로 등장한 것도 핵확산의 한 원인이다. 美國의 GE, 웨스팅하우스, 西獨의 KWU, 프랑스의 프라마돔등 西方의 주요회사들은 開途國에 이미 37基의 原子爐건설을 완성시켰고, 현재 28基의 原子爐를

건설중에 있다. 이들은 국내에서의 原子爐 建設이 침체되자 第3世界의 원자로건설진출로 새로운 活路를 찾고 있다.

美國등 선진 15개 핵공급국은 비싼 石油輸入에서 생기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경쟁적으로 原子爐를 開途國에 수출했으며, 그 결과 81년 현재 전세계 46개국에서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인 원자로는 연구용이 3백40基, 발전용이 4백75基로 크게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3분의 2가 美國이 공급했거나 美國의 라이선스라는 통제다.

스톡홀름의 國際平和研究所는 80년대초에 온세계에 퍼질 原子爐들이 생산해내는 플루토늄은 35만 kg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핵확산의 공포와 위험성을 억제하기 위해 생긴 제도가 68년에 조인되어 70년 3월부터 발효한 핵확산금지 조약이다. 이 조약의 가입국은 1백 14개국이지만, 핵잠재국인 파키스탄, 南아프리카, 이스라엘, 브라질, 아르헨티나등은 이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開途國의 原子爐 현황



(자료) 국제원자력기구